

민주, ‘메가 프로젝트·지방성장 특별위’ 출범

김민석 “국가 명운 걸린 가장 중요한 일”

안도걸·송형곤 위원 선임 “특별한 의미”

혁신당 연대·통합 “당원 의사 확인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메가 성장 특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메가 텐’이라고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메가 성장 특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위는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에 더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서 빠진 지방의 성장을 동시에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대통령도 4년간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위 위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안도걸 의원과 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장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작업이 지방정부만의 단독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메가 프로젝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 시민사회 등 4극이 다 협력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안도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님과 송형곤 의장님을 같이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이 속도감



더불어민주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 성장 특별위원장이 김민석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은 회의에서 “직장을 찾아 서울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물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말의 성찬보다는 속도감 있게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임부위원장인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정책은 정교하게, 집행은 신속하게, 실행은 확실하게 하겠다”며 “성장의 성과가 특정 지역과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상임부위원장은 “이렇게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정책, 사상 전례 없는 기업의 투자가 결합해 민관이 함께하는 정책은 전례가 없었다”며 “어디에 살든지 누구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문제와 관련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사를 확인하면서 처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당내에 찬반이 있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계시다”며 “당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러운 의견을 많이 표명해 주셔도 좋지만 가급적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해 주시면 당으로서는 매우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혁신당과의) 연대 관련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내의 이종 당적 문제도 매우 중요한 선결문제”며 “이 문제는 (연대 논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나 병행 과제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개혁 연대 정당들과의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선 “이번 개각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훨씬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조인철 ‘전남광주문화인프라 빅딜TF’ 단장 선임

“지방주도 성장” 모델 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이 31일 당내 신설 기구인 ‘전남광주문화인프라 빅딜TF’의 단장으로 선임됐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출범하는 전남광주문화인프라 빅딜TF는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남광주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문화·관광·예술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재배치 및 확충하기 위해 구성된 당내 핵심 특별위원회다.

TF는 향후 광주와 전남 간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빅딜(Big Deal)’ 형태의 굵직한 인프라 교환 및 공동 유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를 하나의 초광역 문화 경제권으로 묶어내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경제 전문가이자

옛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장을 역임한 바 있어 전남과 광주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국비 확보와 법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파편화된 투자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TF 출범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발전하는 ‘지방주도 성장’의 훌륭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당, 지자체 그리고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문화 인프라 확충 청사진을 조속히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서삼석 “순천대 국립의대 선정, 서부권 의료현실 외면”

“매우 안타깝다” 유감…후속 대책 마련 요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데 대해 “전남 서부권의 의료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 의원은 “목포대는 지난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는 단순한 대학 유치가 아니라 열악한 전남 서부권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



한 요구였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순천대 선정은 예상 밖의 이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 취약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서부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준비해 온 목포대가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서부권 주민들이 과연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역상생 협력회의가 형식

적인 절차에 그친 것 아닌가”라며 “민행매 시장은 결과에 대한 수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 있는 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립의대는 어느 지역의 전리품이 아니라 통합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기반”이라며 “순천대 선정으로 서부권의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서부권 필수·중증·응급의료 확충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정진욱 ‘2026 AI·반도체 프런티어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 갑)이 31일 ‘2026 KBC 의정대상’에서 800조원의 광주반도체 투자 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AI·반도체 프런티어상’을 수상했다.

KBC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 의원은 “호남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유치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뛰었다”며 “전력과 융소, 소·부·장, 인재 양성 등 필요한 기반을 차질 없이 갖춰 800조원의 투자가 좋은 일자리와 지역 기업의 성장,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심전심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 정보, 생활 서비스를 한 번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로깅!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 기본예금과 이월저축 0% NH로깅
- 신입 4월 1일 2% 적립 / 1월 1% 적립
- 국세공과금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농협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NH로깅

알뜰·신용·저렴

걱정의 마음, 하나로 완성!

NH를바른치로보험

월 3,000원부터 시작하는 저가보험으로 든든하게
이거 하나로 든든하게, 100세까지 든든하게

- 20~80세, 유증자도 간편 가입 가능
- 100세까지 비경상형해당금액 지급
- 정신형 담보 제외
- 첫날부터 100% 지급
- 첫날부터 100% 지급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 환전!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 해외송금!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 농지대자금 대출인도 최대 80%
-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 영농 시설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지동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춘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니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